



2023년 하반기 4대 글로벌 리스크

손민숙 연구원

요약

세계경제포럼(WEF)의 리스크 관리 책임자(CRO)대상 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4대 글로벌 리스크는 ① 거시경제지표, ② 주요 자원의 가격 및 공급 중단, ③ 무력 충돌 및 무기 사용, ④ 녹색 전환 및 AI 관련 규제 변화일 것으로 나타남. 또한 장기적으로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리스크와 대응 방안 검토가 비즈니스 모델과 운영 전략, 재무 관리 등에 큰 변동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은 다중위기(Polycrisis)¹⁾에 직면해 있는 전 세계가 2023년 하반기 주목해야 할 글로벌 리스크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글로벌 최고 리스크 관리 책임자(Chief Risk Officer; CRO)들을 대상으로 조사²⁾를 실시함

- 세계경제포럼은 2023년 1월, 보고서³⁾를 통해 전 세계가 다중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언급하면서 향후 2년간 경제 및 사회에 심각한 위험이 감지되고 있음을 언급한 바 있음
 - 해당 보고서는 1,20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글로벌 리스크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함
- 이번 조사는 2023년 6월 CRO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실무자 관점에서 글로벌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됨
- CRO들은 ① 지정학적 관계, ② 경제, ③ 정치, ④ 사회, ⑤ 기술 5가지 영역에 대하여 글로벌 변동성 수준을 평가하였으며, 2023년 하반기 조직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을 식별하였음

○ CRO들은 경제 및 금융 관련 지속적인 변동성을 예상하고 있으며, ① 거시경제지표, ② 주요 자원의 가격 및 공급 중단, ③ 무력 충돌 및 무기 사용, ④ 녹색 전환 및 AI 관련 규제 변화가 2023년 하반기 조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음

- 거시경제지표(Macroeconomic indicators)위험의 영향력에 대한 응답률은 86%로, 세계 시장 전망에 대한 세계은행(World Bank)의 부정적인 전망⁴⁾과 동일하게 경제적 위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높은 인플레이션 압박, 저금리 시대 종료에 따른 채무불이행 급증 가능성과 소위 좀비기업(Zombie firms)⁵⁾의 파산,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 그 외 노동시장 악화 등이 거시경제지표 위험에 포함됨

1) 각종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중복하여 일어나 큰 위기를 초래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용어로 코로나19 이후 보건 위기, 기후변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인플레이션 충격 등 복합적인 위기를 의미함

2) World Economic Forum(2023. 7. 26), "Chief Risk Officers Outlook"

3) World Economic Forum(2023. 1. 11), "Global Risks Report 2023"

4) World Bank(2023. 6), "Global Economic Prospects"

5) =Zombie company: 부채비용을 감당할 만큼의 충분한 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기업

- 세계은행은 2023년 세계 GDP 성장률 추정치를 2.1%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향후 5년 동안 세계 성장률은 평균 3%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 전망됨
 - 주요 자원의 가격 및 공급 중단(Pricing and/or supply disruptions of key inputs)위험의 영향력에 대한 응답률은 55%로,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변동성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해당 위험의 대표적인 예로 연료 가격 및 공급 불안정, 엘니뇨 현상 등으로 인한 식품 가격 상승, 물 부족, 그 외 새로운 에너지 위기 등이 있음
 - 전반적인 글로벌 공급망 압력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일부 원자재의 가격과 공급은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을 나타냄
 - 무력 충돌 및 무기 사용(Armed conflicts and/or use of weapons)위험의 영향력에 대한 응답률은 50%로, 세계 곳곳에서 발생 중인 무력 충돌로 인해 상당수 조직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곡물 협정 탈퇴 등이 이 위험에 해당하며, 현재 전 세계에서 약 110건의 무력 충돌이 발생 중임
 - 국가 간 갈등의 경우 글로벌 상호의존성에 의해 연쇄 효과를 유발하며, 공급망 중단부터 환율 변동성, 무역 제한 및 제재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녹색 전환 및 AI 관련 규제 변화·준수·시행(Regulatory changes, compliance and enforcement, encompassing developments related to green transition and AI)위험의 영향력에 대한 응답률은 50%로, 정권 교체, 규제 변화·준수·시행 등 세계 주요국들의 정치적 변화는 조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위 위험은 정권 교체에 따른 정치적·정책적 불연속성, EU 인공지능법, 기후변화 및 AI 관련 규제 변화에 따른 컴플라이언스(Compliance)⁶⁾ 위험의 증가 등을 의미함
 - 그 밖에도 CRO들은 윤리적·사회적 위험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윤리적·사회적 위험은 규제 준수보다도 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며, 소비자 집단의 보이콧, 소송, 평판위험 및 수익의 잠재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함
- 장기적으로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리스크와 대응 방안 검토가 비즈니스 모델과 운영 전략, 재무 관리 등에 큰 변동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기하급수적인 AI 기술의 발전은 기업과 조직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였으나, 기술 관련 불안정성, 오용 가능성(허위 정보,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공격 등),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기존 규제와의 정합성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 AI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이 위험관리 가능 범위를 초과하여 발전함에 따라, 기술적 위험이 글로벌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도입 및 개선의 가속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다수 CRO들(91%)이 공감하고 있음
-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향후 6개월간의 단기적인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기업 리스크 관리 및 탄력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위험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⁷⁾

6) 기업 및 조직의 관련 법률, 규제, 윤리적 원칙 등의 준수를 의미함. 법규 준수, 준법 감시, 내부통제 등을 포함함

7) World Economic Forum(2023. 7. 27), "2023's top risks 6 months on - according to Chief Risk Officers"